

불교적 대안 제시할 필진 구성

신임 5명 포함 ... 논설위원 20명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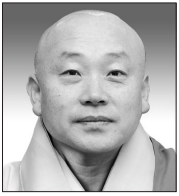
본지는 불기 2554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외부 필진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호스님, 총무원 기획국장 만당스님, 문화국장 묘청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

수 등 5명의 논설위원을 신규로 영입했으며 15명의 기존 논설위원을 재위촉했습니다. 출·재가를 망라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명의 논설위원들은 2010년 1년 동안 ‘수미산정’, ‘천수천안’ 등 고정 칼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수미산정 필진 (무순)



정호스님



만당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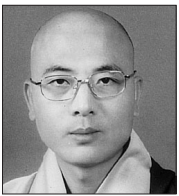
묘청스님



진관스님



심산스님



현종스님



성전스님



정각스님



이진두



허익구



류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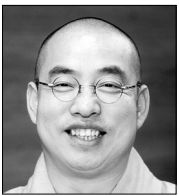


우봉규

천수천안 필진 (무순)



해남스님



해월스님



김숙현



홍사성



우희중



김응철



김상영



신대현

• 신임 논설위원 약력

△ 정호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도령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6년과 1979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재운암 주지 이후 총무원 감사국장, 조사국장, 호법국장을 지냈다. 현재 오산 대각사 주지.

△ 만당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고불총림 방장 수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2년 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불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현재 영광 불갑사 주지로 일하고 있다.

△ 묘청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1991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2001년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윤필암 사불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법계 의제실무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 진관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장. 1968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투신해 1990년 불교인권위원회를 창립했다. 시인으로도 활동하며 <산에 살 때가 좋다더니>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다.

△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 사학과에서 <고려시대 선문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한국불교사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 발표. <전통사찰총서>를 비롯해 사찰 역사 정리 작업에 매진. 불교방송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지혜와 자비의 공동체 구현하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시무식서 강조 ‘주인의식 갖고 역할 해 달라’ 당부



지난 4일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네번째)이 중앙총무원 대표자들과 함께 신년축하 떡을 절단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불기 2554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중앙총무기관과 부설기관이 지난 4일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특히 올해는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이 사실상 ‘첫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깊은 자리였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만드는데 전(全) 종도가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지혜와 자비의 공동체’를 구현하자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신심(信心)·공심(公心)·원력(願力)을 갖춘 불자들이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종단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총무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종단의 주인이 되어 달라”면서 “우리는 인류세계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종교 조직으로,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불교 종단의 존재가치를 바로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뜻은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총무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나왔다. 1월4일자로 보직이동 된 총무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

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종단이 변한다는 원력을 갖는 것”이라면서 “33대 조계종 총무원이 미래불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종단 변화의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 복(福)을 짓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주위가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4일 열린 시무식에서는 교육원과 포교원의 새해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해총스님이 새해 덕담을 통해 이같은 임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교육원은 올해 방향을 ‘자비를 실현하는 불교(승가) 교육’으로 정했다”면서 “올해는 자비

를 실현하는 노력을 통해 건강과 원력을 성취하고, 마침내 자비가 가득한 사회와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간곡히 축원한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해총스님도 “배풀 수 있을 만큼은 베풀어야 하며, 계를 지키는 종무원이 돼야 한다”면서 “참고 견디면서 수행해야 하며, 다시 말해 신심과 발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과 포교원도 ‘사회와 소통’ 하는 인재양성하고 포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무원에 대한 응원도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신심 나고 활기찬 총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원칙에 맞게 살아가는 종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반드시 하겠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시무식에는 이밖에도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상운스님, 사회부장 재경스님, 호법부장 덕문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교역직과 일반직 재가종무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에는 기축년 한해를 회향하고 종무(宗務)를 마감하는 종무식이 거행됐다. 종무식에서는 우수종무원과 10년 근속 종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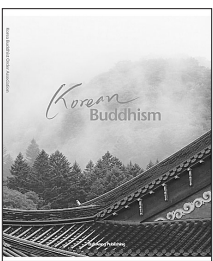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영어권 ‘한국불교 안내책’ 발간

종단협 ‘Korean Buddhism’ 선보여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가 새해를 맞아 <Korean Buddhism>(사진)을 발간한 것이다. 영어로 된 이 책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방법과 의식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템플스테이와 연 등축제 등 한국불교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사, 한국사찰 안내, 산사(山寺) 24시 등 한국불교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풍성하게 실었다.

<Korean Buddhism>은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승가대학장 범광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종수 동국대 강사가 집필하고, 용수스님이 번역을 맡아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단협은 “10여 년 전 조계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한 적이 있었지만 간혹선을 비롯한 한국 불교 수행 전통을 소개하는 장이 빠져 있다”면서 이번 책자 발간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수 기자

포교원, 산하단체 신년하례법회

‘전법 의지’ 다지며 새해 출발

표창장 수여식도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들이 신년하례법회를 갖고 회망차게 새해를 출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포교부장 계성스님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포교사단,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포교단체 임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전법의지를 다졌다.

포교원장 해총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느 때보다 원만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새로 모시게 돼 기대가 크다”며 “포교신행단체들도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결집해 종단의 도약과 증흥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교원장 해총스님은 법회에서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간사, 하현정 불교여성개발원 교육팀장, 남미영·김미경 조계종출판사 주임, 김정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활동기획팀장,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단 이명숙 포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2010학년도 해인총림율원 신입생 모집공고

다음과 같이 2010년도 해인총림율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종단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및 비구스님.

■ 모집인원 : 0명

■ 전형방법 : 전문과정

- 필기시험(기본교리, 계율 및 사상) 면접

■ 접수일자 : 2010년 1월 18일 ~ 2월 28일까지 (양력기준)

- 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전형일자 : 필기시험 - 3월 1일 13시

면 접 - 3월 1일 14:30분

발 표 - 추후 전화 통보

■ 제출서류

1. 입방원서(소정양식) 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 1통

4. 증명사진(반명함판) 5장

5. 건강진단서 1통

6. 종단교육기관교수추천서 1통

7. 본인도장

■ 문의전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총림 율원
율 원 : 055-934-3136 율갈실 : 055-934-3138
총무소 : 055-934-3000~3009